

# 여야, 바이든 당선 '한미동맹' 한목소리

### 與 “북미대화 노력 재개돼야”

### 국민의힘 “비핵화 원칙” 강조

여야는 8일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해 ‘같이 갑시다!’”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한미 공동의 노력으로 백신·치

료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방역 협력과 국제연대를 강화해 위기 극복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

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앞으로의 70년을 세계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 더 굳건히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힘은 한미동맹을 믿는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다만 여야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북미 대화의 중요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를 앞세웠다.

허 대변인은 “한미 간 공조 체제 속에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평화동맹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항구적 평화의 전기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한 한반도의 평화정책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며 북한 핵협상은 미국이 수십년동안 유지한 포괄적 핵합의, CVID 검증에 기초한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北美 관계 악화 우려...韓 역할 중요

### 바이든, 연설·인터뷰 등 통해 대북 강경 입장 고수



바이든 시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그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해왔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 하에서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러브 레터’도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집권할 경우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라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그리고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옥죄는 것이라며 ‘예(Yes)’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뉴욕타임스 설문에서 이란이나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사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는 질문에서도 ‘예’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양 국가(이란이나 북한)에 의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그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지난 1월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줘서 정통성을 부여하고, 제재도 낮춰 줬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 한국

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후보의 지난해 11월 TV 선거운동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광고는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우리 동맹들은 옆으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바이든은 같은 달 11일 아이오와 유세에서도 “우리는 푸틴과 김정은 같은 불량배들을 포용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트럼프)은 도살자와 주고받은 연서에 관해 떠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에 대해 “이 자는 본인 삼촌의 머리를 박살내고 공장에서 형을 암살했다”며 “그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구속되는 가치관 모를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도 가만있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14일 ‘미친 개는 한 시바베 동종으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권력욕에 미쳐 입에서 구렁이(구렁이)가 나가는지 똥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눈만 짜개지면 짚어대는 미친 개 한마리가 또 발작하였다”며 “바이든과 같은 미친 개를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시기 북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성장 미국 워싱턴 연구위원 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의 집권 초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현 대북정책보다 상대적으로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 “야권 연대로 선거” 안철수도 깃발...후보 단일화? 신당 창당?

###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 외부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

‘준 대선급’으로 불리는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7일 딱 5개월이 남았다. 범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중도층 사이에서 당 호감도가 낮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후 대선 결과까지 좌우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정작 낙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입당 문턱을 낮춰 외부의 잠재력 있는 인사 영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나오지 않았으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를 선출한 후 외부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실화가 될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연대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까지도 이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는 통합하거나 단일 후보로 만든 당이 늘 승리하는 경향이 많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선거 막판까지 가변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 대표의 경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줄곧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나, 6일엔 “정권 교체를 위해 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과제와 미래비전’ 강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떤 역할이라도 할 생각”이라고 뉘앙스가 다른 입장을 밝혀 가능성이 살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대표는 나아가 “반문연대라는 이

야기가 나오지만 누구를 반대해서 승리할 정치 세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소병철, 법무부에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배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무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집·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5일 열린 법사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최

근 검찰 안팎에서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검찰의 예산 편성과 배정 담당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의 배정과 집행 상황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특수활동비도) 국가예산인데, 배정에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인사·감찰·예산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배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청별·연도별 특수활동비 증감내역을 제출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